

터키 돌마바흐체 궁전

오스만제국을 폐망으로 이끌다



이복남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bnlee@cerik.re.kr

터키 이스탄불의 보스포러스는 총길이 31km로 지중해와 흑해를 연결하는 좁은 해협이다. 해협 입구에는 돌마바흐체 궁전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 궁전은 그 아름다움만큼이나 볼거리와 애깃거리도 많다.

현재의 돌마바흐체는 1856년도에 완성된, 외곽이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궁전으로 해변을 메우고 지었다. '돌마'는 채운다는 의미이고 '바흐체'는 정원이란 뜻

이다. 1614년도에 최초로 건설되었던 돌마바흐체는 이름 그대로 술탄들이 즐기는 정원 중심의 목재로 된 작은 궁전(당시 이름은 '베식타쉬')이었다.

터키는 목재로 쓸 만한 나무가 없기 때문에 100% 수입에 의존한다. 반대로 대리석은 무한대로 구할 수 있어 목재보다도 건축비가 싸게 든다고 한다. 돌마바흐체 궁전이 자리잡고 있는 곳은 오스만투르크족이 이스

탄불을 정복할 때 닳을 내린 지점이라고 한다.

19세기 중반의 건축, 화려함의 극치

궁전의 면적은 250,00㎡(약 8만 3,000평)이고 건축 연면적은 14,600㎡(약 4,500평)이며, 건물은 2층으로 되어 있다. 바닥에는 난방 장치가 되어 있고 2층이지만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어 있다. 궁전 안에는 모두 285개의 방이 있는데 모두가 다르게 디자인되어 같은 방이 하나도 없다. 회의나 의전을 하는 홀이 43개나 있으며 1,427개의 창문, 6개의 발코니(이 중 2곳은 보스포러스해협에서 바로 접근하여 출입 가능)와 목욕탕이 있다. 또한, 장식용 시계 156개, 화병 280개, 장식용 촛대 58개로 치장되어 있으며, 바닥을 장식하고 있는 131개의 큰 카펫, 99개의 작은 카펫은 전부 실크로 된 수공예 작품이다.

궁전의 중앙 홀(훈카로 카팜)은 해협에서 바로 접근 되는 곳에 자리잡고 있다. 중앙 홀의 면적은 '40m×50m(약 600평)' 인데 1, 2층을 텃기 때문에 더 높고 더 넓게 보인다. 중앙에는 이 궁전의 화려함을 상징하는 무게 4.5톤의 샹들리에가 사람들의 시선을 압도한다. 천장 36m 높이에 매달려 있는 이 샹들리에는 750개의 크리스탈 촛대로 구성되었다. 무거운 샹들리에를 지탱하기 위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별도의 철재가 천장에 매입되어 있다. 천장에는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마치 건물이 돛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원근법을 사용한 그림을 그려 놓았기 때문이다. 천장과 닿은 4면의 벽에도 원근법을 사용한 그림을 그렸다.

지금의 궁전은 1839년 제31대 술탄 압둘메지트가 아르메니아 건축가인 카라바트 발얀을 지명하여 1843년도부터 건축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궁전 정문 입구

에는 높이 17m의 시계탑이 있는데 영국 왕실에서 선물한 것으로서 아직까지 작동되고 있다.

돌마바흐체 궁전은 건축 공사비만 1조원(평당 2,300만원)이 들어갔을 정도로 화려하다. 중앙 홀을 둘러싸고 있는 발코니 바닥의 별 모양 모자이크는 3가지의 다른 색상을 가진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수천 개의 별 모양을 조립했지만 마치 최신 기술로 만든 것으로 착각할 만큼 정교하다. 작은 흠집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중앙 홀에서 발코니로 올라가는 계단 손잡이들은 모두가 크리스탈로 장식되었다. 내부 치장에 사용된 14톤의 금(현 시세로 7,500억원)과 40톤의 은(시세로 420억원), 수제 실크 페르시아 카펫과 실크 커튼은 15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걸려 있다. 화려한 궁전의 내부만큼이나 보스포러스해협에서 배를 타고 보는 야경도 아름답다고 한다. 돌마바흐체 궁전은



궁전 내 정문.



궁전 중앙의 샹들리에.

인류 역사와 함께한 건설 상품 100선 87

해협 제1의 유람선 야경 코스이다.

터키의 아버지, 케말이 잠든 곳

돌마바흐체 궁전은 그 화려함만큼이나 주목받는 역사를 지니고 있다. 600년 간 화려한 역사를 자랑했던 오스만투르크제국의 마지막을 이 궁전에서 장식했던 것이다. 술탄이 거주했던 궁전은 현재 대통령 궁전으로 바뀌었다. 이곳은 터키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아타튀르크가 숨을 거둔 곳이기도 하다. 터키공화국의 건국자 혹은 아버지로 불리는 무스타파 케말(아타튀르크 대통령은 지금의 터키를 있게 만든 전설적 인물이다. 터키어가 아랍 문자를 사용하는 것을 현재의 영문 알파벳(독일어와 같은 발음)로 바꿨으며 이슬람을 정치와 군대, 종교 등과 분리시켜 민생 경제를 부흥시킨 것도 이 사람이었다. 이 사람에 대한 존경심은 궁전 내에 있는 모든 시계 바늘이 이 사람이 숨을 거뒀다는 9시 5분 상태로 정지시켜 두었을 만큼 높다. 눈만 내놓은 차들로 옷차림과 반팔, 반바지의 자유로운 옷차림으로 활보하는 여성을 같은 거리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만든 것도 아타튀르크 대통령의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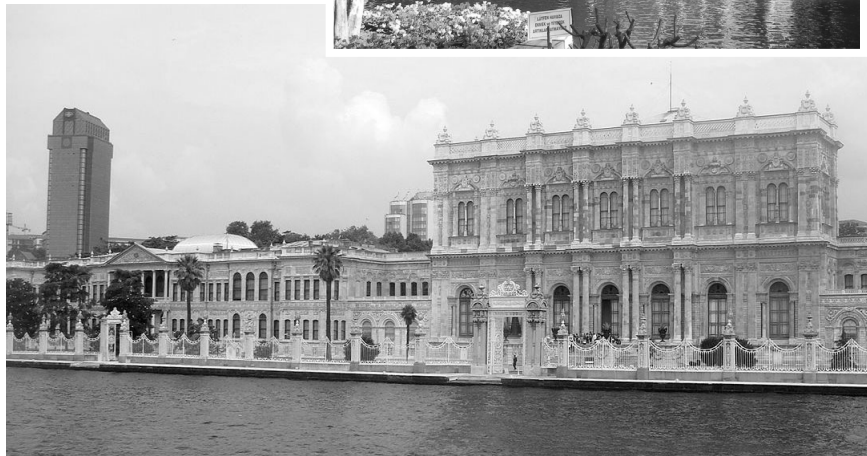
곳곳에 이슬람 모스크사원이 있고 황성기에서 울려 퍼지는 코란 기도 소리가 수시로 들리지만, 늘어선 카페에서 사람들은 터키식 홍차와 맥주를 즐기고 있고, 춤추고 키스하는 길거리의 젊은이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버킹검과 베르사이유 모방

돌마바흐체 궁전의 건축에 들어간 공사비 1조원은 당시 오스만제국의 경제에도 상당한 부담이었다. 전쟁과 사치로 제국의 힘이 약화되어 가는 것을 감추기 위해 화려한 궁전을 건설한 것이 오히려 제국을 폐망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 건축비만 1조원이지만 내부 장식에 들어간 돈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제국의 힘에 부쳤다. 술탄은 상들리예나 카펫, 시계 등을 독일이나



시계탑.



해상 정문(아래)과 성 내 분수정원(위).

영국, 이집트로부터 선물을 받았다고 국민들에게 자랑했지만 제국의 국민들은 믿지 않았다고 한다. 제국이 유럽을 지배할 당시에는 이집트와 게르만 국가 등으로부터 조공에 가까운 선물을 받았지만, 이미 제국의 힘이 쇠퇴할 대로 쇠퇴한 1850년대에는 선물이 아닌 돈을 주고 구입했다는 게 오늘의 터키인들이 믿고 있는 정설이다. 이 궁전은 재정난으로 제국을 파국으로 인도한 원인을 제공했지만 오늘날에는 지구촌으로부터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관광 문화 상품인 궁전은 국고에 상당한 보탬을 주고 있으며, 효자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하루 입장객은 1,5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돌마바흐체 궁전은 오스만제국이 술탄 왕실로 사용했던 인근의 토프카피 궁전의 국운을 되찾고자 새롭게 건축했다는 얘기가 있다. 토프카피는 철저한 이슬람식으로 외관을 중시한 반면 이 궁전은 유럽식으로 내부 장식을 중요시한 것도 차이다. 이슬람 세계인 아시아와 기독교 세계인 유럽의 지리적 경계에서 제국은 유럽식을 택했다고 한다. 이스탄불의 면적은 국토의 3%에 불과하고 아시아가 대부분이지만 제국은 이를 거부하고 유럽식을 선택했다.

궁전의 외부 모양은 영국의 버킹검궁을 모방했고 내부 정원과 내부 건물은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전을 모방하여 화려하게 치장하였다. 하지만 건물의 배치만큼은 남자들의 거주와 행정 공간인 셀람투크과 여자들의 공간인 하렘으로 나누어 철저하게 차단되도록 했다. 이슬람식 내부 공간 구조는 단순하지만, 이 궁전은 화려함 자체로 불릴 만큼 의자와 책상, 그리고 각종 장식품들로 가득 차 있다. 하렘에 거주하는 여자들의 서열을 알 수 있는 의자의 크기와 화려함도 돋보인다. 술탄의 하루 생활상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거실, 침실, 회

의장, 목욕탕, 화장실 등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 있지만 실내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다. 외부 방문객들은 건물 내부를 보호하기 위해 신발에 비닐 덧신을 신어야 출입이 가능하다.

오스만제국의 저력 투영

터키의 원조인 오스만제국은 1,600년에 걸쳐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지배했을 만큼 강한 군대를 가졌다. 돌마바흐체와 같은 화려한 궁전을 건설할 정도로 힘과 재력을 가진 국가이기도 했다. 아직도 발굴 중에 있거나, 지진과 전쟁으로 파괴되어 산재해 있는 건축물들은 번성했던 제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다. 터키는 로마와 그리스, 이집트에서 번성했던 문화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동시에 순수하게 터키식 건축물이나 문화, 종교를 볼 수 없는 융합 문화 국가이기도 하다.

남아 있는 주요 건축물이나 수로, 저수조 등에 동원된 건축 자재들은 주변국들의 조공(역사에서는 이를 선물이라 호칭)으로 얻어진 것으로 터키에서는 단지 조립만 했을 뿐이다. 1,500년 전에 만들어진 지하 물 저장고 예라바탄(지하 궁전으로 별칭)을 받치고 있는 돌기둥 336개는 그 모양이 모두 다르다. 남아 있는 주요 건축물의 돌기둥이나 바닥재가 모양은 같지만 재질이 다르거나 형식에 약간씩의 차이가 나는 것도 생산지와 가공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1,500년 전에 이미 건축 공사에 사전 조립 방식을 사용했다는 사실도 놀랍다. 돌마바흐체 궁전에 깔린 카펫 하나하나에 역사가 있는 것도 이런 이유이며, 중앙 홀 상들리에의 750개 크리스탈 촛대도 크기는 같으나 모양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이러한 미세한 차이는 또 다른 관광 상품이 되고 있다. CERIK